

2017년 10월 18일, 한경면 낙천리 저거흘못 정자, 이효순 조사.  
조성동(남, 1940년생, 한경면 낙천리)

- 줄거리: 한 할머니가 많은 물건들을 고르고 나서 엿장수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그 값에 치만큼 자르라고 하였다. 집으로 돌아와서 머리를 확인해 보았더니 반쯤 잘랐을 거라 생각했던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서 대머리가 되었다.

**[제보자]** 옛날 엿장시들이 모을에 막 뭐 팝서, 팝서 허멍 뎅겼어. 가발 헐 머리덜도 사곡. 어떤 할망이 신디 막 뛰어서, 우선 물건부터 골랐어. 비누, 성냥, 옛, 기타 등등 골랐거든. 이만이.

“이것만큼만 나 머리 썰라갑서.”

게난 그 아지망 생각엔 머리 약간만 썰를 줄 알았는디 집이 강 보난 민딱 다 밀어불언.

**[조사자]** 그 물건만큼 짤란 보난 몬딱 밀어불언?

**[제보자]** 밀어불언. 눈이 흐쓸 어두워양 그 할망. 경 환허게 보이질 안 허는디.

**[조사자]** 그추룩 썰른 줄 몰랐구나게.

**[제보자]** 지도 삼분에 일이나 끊엇이카부덴 허난 집이 간 확인해 보난 민딱 중대가리 맨 들어 불언.

- 핵심어: 엿장시(엿장수), 욕심, 머리카락, 대머리, 할망(할머니)